

보육교사 보육활동 권리보호를 위한 부모가 풀어보는 문제 보육고사(保育考査)

보육교사들의 보육활동을 위한 권리 존중은 단순한 직업적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영유아 돌봄 환경과 보육교사 인권 존중 등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최근 몇 년 간 보육 현장에서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 보육교사들이 높은 스트레스와 체력적 소진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보육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육교사들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데 있어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지만, 단순한 돌봄을 넘어 교육, 발달 지도, 그리고 사회적·정서적 지원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까지 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보육교사들이 과도한 행정 업무와 부모 상담, 규정 준수 등의 업무에 시달리며 본연의 보육 활동에 충분히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부모의 무분별한 보육활동 참견은 보육교사에게 자율적 보육활동 운영의 권리를 침해하며 보육의 질을 하락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보육교사들이 안정적이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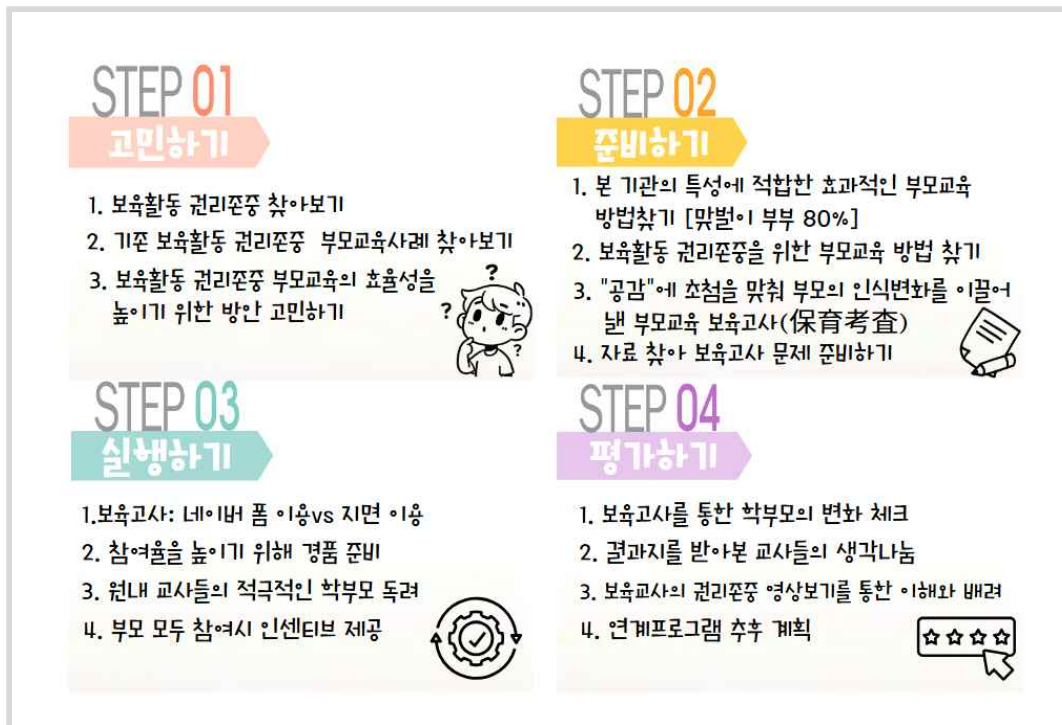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는 이 시점에서 부모가 보육교사를 바라보는 인식 개선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과거 보육교사에 대한 인식은 여성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 베이비시터 등 돌봄을 주로 담당하는 직업으로 여겨졌으나, 최근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와 영유아 보육의 질이 교사의 질과 맞물려 있음이 강조되면서 보육교사도 교직의 전문가로 변화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보육활동을 아이들이 놀고만 있다고 생각하거나 보육교사와 부모의 관계를 갑을관계로 여기는 등 부모들의 보육활동을 위한 교권 존중 인식은 더디게 개선되고 있다.

보육교사의 최소한의 보육활동을 위한 권리 존중이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기존 보육교사와 보육활동을 바라보는 부모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해졌다. 보육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사례 모음집 발간, 부모교육을 위한 동영상, 부모교육 강좌 등 기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발성을 띤 교육이나 읽을거리나 볼거리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잠깐의 영상이나 일회성 교육만으로는 보육교사의 보육활동 권리를 존중하기엔 부모의 인식변화가 빠르게 변화되거나 유지될까? 라는 생각에 부모가 스스로 변화를 촉구할 수 있는 자발적인 부모의 인식변화를 위한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는지 고민하게 되었다.

그래서 본 어린이집은 보육교사의 보육활동 권리보호를 위해 부모가 보육교사의

관점에서 풀어보는 보육고사(保育考査)를 마련해 보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보육활동 침해 상황들과 보육교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다양한 예시를 통해 부모의 능동적인 인식개선이 일어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계획하였다. 부모가 문제 속 보육교사가 되어 입장을 충분히 생각해 보며 문제를 풀어본 후 보육교사들의 인터뷰가 담긴 광명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보육교사의 이야기」 영상을 시청하며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통해 충분히 보육교사와 보육활동에 대해 공감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프로그램 계획은 <표 1> 보육교사 보육활동 권리 존중 프로그램 구성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자료 1> 보육교사 보육활동 권리 존중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 절차

STEP 01: 고민하기

처음 프로그램을 계획하기 전 보육현장의 보육교사들과 보육활동 권리 존중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였다. 그래서 각자의 인터넷 검색, 도서 자료, 뉴스 기사 보도 자료들을 찾아보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기존의 보육활동과 관련된 권리존중 부모교육 사례는 짧은 영상 제작이 많았고, 지면을 통한 부모 교육자료 배부,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부모교육 등이 있었다.

본 기관에 근무하는 교사에게 “보육현장의 보육활동 권리 존중을 위해 가장 어려

김교사: 부모님들께 우리의 입장을 우리가 직접 이야기하는 게 좀 어려워요.

손교사: 당연한 권리지만 부모님과 사이가 껄끄러워지는 게 참 어려워요
 이교사: 부모님과 잘 지냈는데 제가 권리를 주장하다 괜히 넘어갈 일들도
 예민하게 받아들일까 봐 걱정돼요.
 신교사: 말씀드렸다가 어린이집을 그만둘까 봐 걱정되기도 해요.

운 부분이 무엇일까?”의 질문을 통해 생각을 알아보았다.

보육활동 권리 존중을 위한 대면 또는 비대면 교육이나 지면을 통한 안내문 등에 대해 본 기관의 보육교사들은 “대면 비대면 교육 바빠서 안 들으려 하실 거예요.”, “보내드려도 읽는 부모님들은 소수에 불과하더라고요.”라는 현장의 이야기를 전달하였다. 그렇다면, 보육교사의 입장도 난처하지 않고, 보육교사의 입장에 서서 공감하며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보육교사의 보육활동 권리 존중을 위한 방법이나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 보육현장의 선생님들과 고민해 보기로 하였다.

STEP 02: 준비하기

부모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본 기관을 이용하는 학부모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부모의 직업, 성향, 자녀 수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 부모교육은 부모의 참여율을 높이고, 부모가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여 올바른 부모로 성장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본 어린이집은 만0세부터 만2세 연령의 자녀를 양육하는 맞벌이 부부의 자녀가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동 자녀 비율이 60%, 첫째 자녀의 경우 10%, 둘째 자녀의 경우 30%로 구성되어 있었다.

본 기관을 이용하는 부모의 특성을 바탕으로 부모 참여율 80%를 목표로 삼아 보육교사 보육활동 권리 존중을 위한 부모교육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본 기관의 보육교사들은 부모가 우리를 교사로 ‘인정’해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입장을 ‘공감’해 주길 바랐다.

김교사: “아침에 세수시켜 달라고 하며 등원시켜줄 때 한 아이를 보는 것도 아니고 많은 아이를 봐야 하는데... 우리의 일을 공감하고 배려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김교사는 학부모와의 사례를 이야기하며 우리가 보육활동 속에서 한 아이만 볼 수 없는 상황과 가정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보육교사에게 미루는 상황들을 보며 직업적으로 회의감이 밀려올 때가 종종 있다고 하였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공감(共感)해 줄 수 있는지 고민하던 끝에 보육현장에서 우리가 겪는 다양한 보육활동 침해 사례를 부모에게 제시해보기로 하였다.

그리고 보육활동 침해사례 속 보육교사가 되어 “내가 부모가 아닌 보육교사라면?” 의 질문을 통해 보기에 제시된 다양한 선택사항을 읽어보고 문제를 풀며 고민하고 공감해 볼 수 있는 보육고사(保育考査)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보육고사(保育考査)의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 다양한 사례들이 필요했다. 본 기관의 사례를 이용해 문제를 제출할 경우 해당 학부모가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건들, 보육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구성해보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발간한 「보육교사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응 가이드」 속 사례들과 교권 보호 법령들을 중심으로 내용을 기초로 최근 뉴스에 보도된 교권 침해 사례를 넣어 부모가 문제를 풀며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하였다.

STEP 03: 실행하기

본 기관의 부모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시험지를 모두 지면으로 복사하여 배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부모가 익명으로 참여했을 때 좀 더 보육교사의 입장에 서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 네이버 폼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본 기관의 홈페이지에 네이버 폼 설문지를 작성하여 링크 주소를 올린 후 참여율을 증진 시키기 위해 원내에서 자체적으로 추첨을 통한 경품을 마련하여 부모에게 공지하였다.

네이버 폼으로 참여한 부모는 어린이집 홈페이지에 “00맘 참여 완료, 00파 참여 완료”를 댓글로 달아 참여했음을 밝히고 교사는 추첨권을 아이들과 함께 제작한 후 추첨하여 부모의 참여를 독려했다.



〈자료 2〉 실행 과정 순서도

STEP 04: 평가하기

본 기관의 보육고사 프로그램은 학부모님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주말을 포함해 기간을 선정하였으며, 네이버 폼을 이용한 결과,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의 참여도 증진 시킬 수 있었다.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로 보육고사(保育考査) 결과지는 예측대로 80%이상 참여

하였으며, 보육고사 문제지의 마지막 장에는 문제를 풀고 난 후의 부모의 인식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공감 평가’ 설문조사서를 넣어 변화된 부모의 인식을 알아볼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아쉬운 점은 부모가 보육활동 권리 존중에 대한 인식변화가 얼마나 일어났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부모의 인식도 체크를 보육고사 문제지를 풀기 전과 풀어진 후로 두 번 실시하였다면 비교가 훨씬 더 잘 되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보육고사 보육활동 권리 존중을 위해 부모가 푼 문제의 정답지는 「광명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 보육고사 이야기 편」 영상물로 구성하였다. 문제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 것보다 보육교사의 이야기라는 영상을 통해 부모가 열린 마음으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도록 한 번 더 생각하는 영상자료를 첨부하였다.

이렇게 실시한 자료의 결과를 모아 본 기관의 보육교사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보육교사가 생각한 학부모의 생각과 학부모가 생각한 보육교사의 생각을 비교하면서 교사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김교사: 부모님들은 받아들이기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말 꺼내기가 어려웠던 것 같기도 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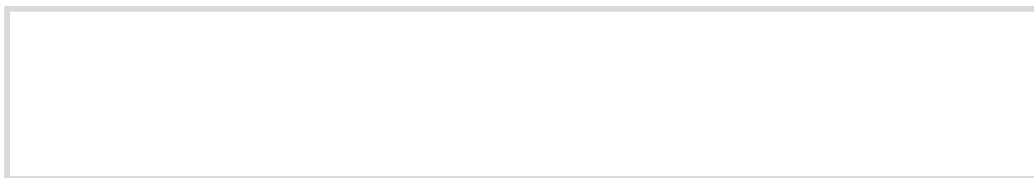
손교사: 우리를 이해하며 교사를 대하는 부모님들의 행동도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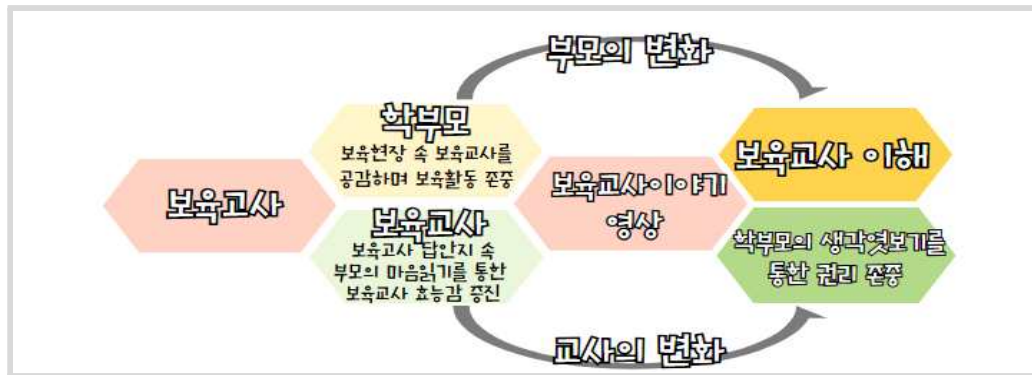
이교사: 생각보다 우리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시는 것 같아, 아직은 어렵지만 조금씩 저의 입장이나 보육활동과 관련된 사항도 제시해 봐야겠어요.

신교사: 보육고사 하면 아동학대를 먼저 떠올리며 의심하던 부모님들의 인식이 진짜 변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부모들의 보육고사(保育考査) 문제답안 작성을 읽으며 교사들은 부모들의 인식변화를 위해 노력했던 보육교사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았음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부모들은 준비되어 있었는데 과거부터 이루어졌던 곱지 않은 편견들로 우리 스스로가 고개 숙이고 있는 건 아니었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다.

본 기관의 보육교사들과 의견 나눔을 한 후 부모님들에게 정답지처럼 안내해준 「광명시육아종합지원센터-보육고사 이야기」영상을 함께 시청하였다. 보육교사로서 영상의 내용을 공감하며 보육교사로서 작아져 있던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시간이 되었다.





〈자료 3〉 보육교사를 통한 부모의 변화와 교사의 변화

본 기관은 보육교사 보육활동 권리보장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보육교사 보육활동 권리보호를 위한 부모가 풀어보는 문제- 보육고사(保育考査)」를 실행하였다. 첫 아이를 낳고 처음으로 부모가 되고 나서 어린이집이라는 기관을 보내며 첫 학부모가 된 부모님들!! 그들이 부모가 처음이기에 부모의 역할이 어렵듯 우리 선생님을 대하는 방법도 마음과 다르게 서툴렀음을 보육교사인 우리는 알 수 있었다.

내 아이를 키워주는 고마운 선생님, 봄날의 햇살 같은 우리 선생님, 하며 우리 선생님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작성해주신 글과 부모님들의 믿음이 또다시 우리를 보육현장에 우뚝 서 있게 만들었다. 서툰 부모와 서툰 보육교사들이 만나 서로 소통, 배려, 존중하며 우리 아이들을 키워 나갈 때, 보육현장 속 보육활동의 권리는 자연스럽게 보장되지 않을까 한다.

마지막으로 보육현장에서 아직 서툰 학부모님들 때문에 보육 현장을 떠나려는 선생님들께 응원의 메시지가 되길 바라며 본 기관의 보육고사(保育考査)에 참여했던 학부모님들이 작성해 준 응원의 글을 공유하려 한다.

[세상 모든 보육 교사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 두 번째 엄마이신 것 같아요. 늘 감사합니다.
- 날개 없는 천사 보육교사님들 파이팅!
- 보육교사는 '을'이 아니라는 거~! 당연히 인정해야 함~!
- 아이들을 가르치고 보육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엄마의 역할도 어려운데 여러 명의 아이를 함께 보육한다는 것이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하늘이 내려준 멋진 분들이세요. 언제나 파이팅입니다.
- 파이팅 하세요. 이상한 학부모도 있지만 안 그런 학부모도 많이 있으니까~!
- 아이를 돌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모든 선생님이 이 직업에 대해 높은 자긍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살면서 가장 어려운 순간들을 동행해주는 선생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 엄마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엄마 같은 선생님들~! 선생님들이 있어

우리 아이가 오늘 더 성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선생님들의 덕분입니다.

- 보육교사 없으면 부모의 삶이 망할 것 같아요. 어제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힘내세요.
- 세상에 첫 사회를 배우는 시작점이 보육 기관에서 시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중요할 때에 가장 중요한 선생님이 보육교사입니다. 존경합니다.
- 사랑합니다.
- 모두 감사드립니다.